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2면

인촌기념화 동아일보,
제38회 인촌상 시상식 개최

3면

“현장에서 소름 돋고 경탄”
〈강철부대W〉 첫 방부터 도파민 폭발

4면

스무살 생일 맞은 어린이과학동아,
어린이 우주인 선발해 NASA 보낸다

“더 큰 도약을 위한 리브랜딩… 콘텐츠 업계 선도하겠다는 각오와 결의 담아”

채널A 리브랜딩 알리는 ‘새로운 시작: Channel A-Day’ 행사 진행…보도-예능-교양 신규 콘텐츠도 소개



① 김차수 채널A 대표이사가 10월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새로운 시작: Channel A-Day’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의 진행은 광경이 전 경영전략실 성장전략팀장이 맡았다. ② 채널A 리브랜딩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윤정화 편성전략본부장 ③ 채널A 킬러 콘텐츠와 신규 예능 콘텐츠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진민 스튜디오E 본부장 ④ 채널A 신규 드라마 라인업을 소개하고 있는 정희옥 스튜디오D 본부장 ⑤ 채널A 보도 프로그램 라인업을 소개하고 있는 박민혁 보도본부장. 사진=편집국 사진부 송은석

채널A의 변화와 도약을 알리는 ‘새로운 시작: Channel A-Day’(이하 채널A 데이)가 10월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7월 7일 채널A 리브랜딩 공식 도입 후 100일을 기념해 리브랜딩과 채널A의 다채로운 신규 콘텐츠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경영전략실 성장전략팀, 채널A B&C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채널A의 기업 이미지(α)와 슬로건, 로고, 그리고 미션과 비전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자는 취지다.

무대에 마련된 가로 20m, 세로 4m 크기의 대형 커브드 LED 미디어월을 통해 공개된 리브랜딩 소개와 채널A 콘텐츠 라인업은 참석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재계 및 채널A 관계자 등 약 270명이 참여했다.

100일 맞는 채널A 리브랜딩

채널A 데이에서는 개국 13년 만에 이뤄진 첫 리브랜딩의 취지와 내용, 리브랜딩 이후 더욱 새로워진 채널A의 하반기 라인업이 소개됐다. 김차수 채널A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더 큰 도약을 위해 이번 리브랜딩을 시도했다”면서 “단순히 CI와 슬로건을 바꾸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콘텐츠 업계를 선도하겠다는 각오와 우리의 결의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윤정화 편성전략본부장의 리브랜딩 소개가 진행됐다. 윤 본부장은 채널A가 하는 업의 본질을 기존의 ‘종합편성채널’에서 시청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는 ‘Content Play & Create Platform’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새 슬로건인 ‘즐거워 너의 세상, Play the next’에 대해선 “콘텐츠의 본질적 가치인 즐거움에 집중하고, 그 시청 보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며 “‘너의 세상’이라는 담대한 표현을 통해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윤정화 편성전략본부장의 리브랜딩 소개가 진행됐다. 윤 본부장은 채널A가 하는 업의 본질을 기존의 ‘종합편성채널’에서 시청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는 ‘Content Play & Create Platform’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새 슬로건인 ‘즐거워 너의 세상, Play the next’에 대해선 “콘텐츠의 본질적 가치인 즐거움에 집중하고, 그 시청 보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며 “‘너의 세상’이라는 담대한 표현을 통해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새 콘텐츠 라인업에 대한 소개는 콘텐츠 제작을 맡고 있는 스튜디오D, 스튜디오E, 보도본부의 각 본부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섰다. 정희옥 스튜디오D 본부장은 로맨틱 코미디 〈결혼해YOU〉, 판타지정춘사극 〈체코인 한양〉, 미스터리 로맨스 〈마녀〉 등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어질 드라마 3편의 예고편을 선보였다. 이진민 스튜디오E 본부장은 〈하트시그널〉, 〈강철부대〉, 〈금쪽같은 내 새끼〉 등 채널A 킬러 콘텐츠와 함께 국내 최초 테라피 예능 〈애라원〉, 〈하트시그널〉 제작진의 새 연예예능 〈하트퍼어링〉 등 신규 콘텐츠 설명으로 기대감을 높였다.

박민혁 보도본부장은 한층 더 깊고 넓어진 보도 프로그램 라인업을 소개했다. 보도본부는 최근 지식 총전 프로그램 〈이야기 더〉, 유튜브 콘텐츠 〈경제시그널〉 등을 새롭게 선보였고 온라인에서는 〈기업 IR 뉴스〉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다양한 기업 소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풀킴이 부른 채널A 브랜드송도 공개

리브랜딩과 함께 준비한 채널A의 브랜드송도 이날 처음 공개됐다. 브랜드송 기획은 ‘채널A의 새로워진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채널A의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브랜드송을 만들기 위해 곡 작업을 맡을 아티스트를 섭외하는 단계부터 공을 들였고 채널A의 젊고 트렌드한 이미지에 어울리는 한국 힙합계의 대표 프로듀서 ‘그루비룸(GroovyRoom)’이 작곡을, 매력적인 목소리의 싱어송라이터 풀킴이 노래를 맡았다. 작사는 그루비룸과 풀킴이 공동 작업했다. 새롭게 탄생한 브랜드송은 앞으로 각종 콘텐츠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시청자들에게 채널A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보다 더 친숙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채널A의 브랜드송은 향후 음원 플랫폼을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38회 인촌상 시상식

2024. 10. 21 일



10월 1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8회 인촌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정길 밀알복지재단 이사장, 박정자 연극배우,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권인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이진강 인촌기념회 이사장.

인촌기념회·동아일보, 제38회 인촌상 시상식 개최

홍정길 밀알복지재단 이사장(교육), 박정자 연극배우(언론·문화), 안대회 성균관대 교수(인문·사회), 권인소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과학·기술) 수상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38회 인촌상 시상식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10월 11일 열렸다. 인촌상은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경성방직과 고려대를 설립한 민족 지도자 인촌 선생의 유지를 이어 나가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이사장 이진강)와 동아일보는 인촌 선생의 탄생일인 10월 11일에 맞춰 매년 시상식을 열고 있다. 이날 수상자는 ▲홍정길 밀알복지재단 이사장(교육) ▲박정자 연극배우(언론·문화)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인문·사회) ▲권인소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KAIST 교수(과학·기술)로 각각 상장과 메달, 상금 1억 원을 받았다. 이진강 이사장은 시상식 인사말에서 "인촌상은 인촌 선생의 나라 사랑을 되새

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드는 노력을 공유하기 위함"이라며 "올해 수상자들의 모습에서 민족을 위해 조용히 헌신하셨던 인촌 선생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홍정길 밀알복지재단 이사장(82)은 국내 복음주의 운동의 선구자다. '건물 없는 교회'로 유명한 남서울은혜교회의 원로목사로 1996년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밀알학교를 설립했다. 홍 이사장은 "민족의 스승들 같은 역대 인촌상 수상자의 뒤를 이어 큰 상을 받는 건 두렵다"면서도 "마지막까지 밀알 정신으로 겸허히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자 연극배우(82)는 1962년 연극 '페드라' 이후 올해까지 62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무대에 오르면서 일생을 연극에 헌신했다. 박 배우는 "인촌상이 연극배우에게 처음 주어지는데 앞으로 후배에게 빛장이

열린 것 같아 더욱 감사하다"고 했다.

안대회 교수(63)는 한문학 연구 권위자로 고전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안 교수는 "수많은 옛 문헌의 숲을 뒤져 연구하고 대중화한 30여 년의 끈기와 수고를 인정해주시는 인촌기념회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권인소 교수(66)는 1980년대 국내 불모지였던 로보틱스·컴퓨터비전 분야에 도전해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내냈다. 권 교수는 "대학 때부터 존경한 인촌 선생의 유지를 기리는 상을 받아 영광"이라며 "상금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AI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편집국 문화부 김기윤
경영지원국 협력지원팀 추선영



2019년 인촌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왼쪽)와 한 작가 어머니 임감오 씨.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에 5년 전 인촌상 수상 소감도 재조명 "인촌상 이후 활약 더 기대" 예상 현실로

올해 인촌상 시상식은 행사 전날인 10월 11일 제33회 인촌상(2019년) 언론·문화 부문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54)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발표돼 의미를 더했다. 11일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사회자는 한국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인촌상 수상자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전했다.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한강 작가는 5년 전인 2019년 10월 진행된 제33회 인촌상 시상식에서 독자의 편지를 소개하며 수상 소감을 시작했다. 그는 "작가들의 전성기가 보통 50, 60대이니 앞으로 적어도 10년간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소설을 계속 써 달라는 당부(독자 편지에 담겨 있었다)"며 "그 편지를 받고 10년 동안 쓸 수 있을 만큼의 글을 쓰고 싶어졌으니 그렇게 마음이 기울어진 대로 저의 삶이 흘러가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하는 등의 공로로 인촌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10년간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한 지 5년 만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 당시 인촌상 심사단은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 작가가 막 전성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라며 "지금까지 성취한 것만으로도 수상자로서 충분하지만 한강은 이후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작가"라고 평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발표 이후 한강 작가의 인촌상 수상 소감 영상도 SNS에서 화제가 됐다. 영상을 소개한 '매거진동아' 유튜브 채널에는 "한강 작가님이 꼭진하게 기울인 마음이 5년 후, 세계인들의 삶에도 흘러들어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신희철

런린이부터 베테랑까지...가을을 뜨겁게 달군 동아마라톤

공주 마라톤 등 명품 대회부터 제복근무자 위한 이색 대회까지 다채롭게 열려



① 1만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룬 '2024 공주백제마라톤' 현장. ② '2024 서울레이스' 참가자들이 자신의 기록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있다. ③ '동마 디스턴스 챌린지' 참가자들이 1~3km 트랙 달리기 기록을 측정하는 모습. ④ 제복 근무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기 위한 '리स्पек트런' 대회 포스터.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다양한 마라톤 대회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올 가을에는 공주백제마라톤 등 전통적인 명품 대회에 더해 제복 근무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색적인 대회가 처음 진행된 의미를 더했다.

가을 동아 마라톤의 시작을 알린 행사는 '동마 디스턴스 챌린지'다. 9월 18일 하남종합운동장에서 처음 열린 이 대회는 1~3km 트랙에서 달리기 기록을 측정하는 후, 이를 풀코스 기록으로 환산하는 이벤트였다. 풀코스 기록이 없는 이들도 <동마 디스턴스 챌린지>를 통해 내년 '서울마라톤'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성적이 우수한 참가자에게는 '서울레이스' 등 다른 대회의 선두 그룹에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10월 1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2024 서울레이스>는 1만 2000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경복궁, 청와대, 남대문, 청계천 등 서울 도심을 누비는 코스로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합'한 대회로 인기를 끌며 젊은 층의 참가 비율이 급증

했다. 올해는 전체 참가자 중 2040세대 참가 비율이 95%에 달했다. 특히 하프코스 여성 참가 인원은 지난해보다 14% 증가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리स्पек트런>은 동아일보와 국가보훈부가 제복 근무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기 위해 기획한 대회다. 10월 26일 하남미사경정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5175만 국민이 1년 365일 뛰는 제복 근무자들을 응원하는 취지로, 일반 참가자 5175명과 제복 근무자 136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진행된다. 참가비 일

부는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부된다. 동아일보를 대표하는 <공주백제마라톤>과 <경주국제마라톤>도 각각 9월 22일과 10월 19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만 명이 참가한 공주백제마라톤은 5km의 짧은 코스도 마려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경주국제마라톤에 참가한 1만 2000명은 국립경주박물관과 첨성대 등 문화도시 경주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달렸다. 경주

국제마라톤은 1994년부터 일반인 참가자를 모집하며 경성권 최대 규모의 대회로 자리잡았다. 안중산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장은 "마라톤 인기에 발맞춰 동아일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의 종류와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며 "참가자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협력 브랜드를 늘려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 신강혁



① 707과 해병대의 양보 없는 참호격투 장면. ② <강철부대W> 연출을 맡은 스튜디오E 신재호 PD. ③ 대원들이 '11m 외줄 오르기'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소름 돋고 경탄” <강철부대W> 첫 방부터 도파민 폭발

첫 화 분당 최고 시청률 4.1% 기록



도 예상했으나, 남성 시청층에서도 좋은 반응이 나올 거라곤 예측하지 못했다. ‘이번 시즌 첫 포문을 잘 열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철부대W>는 대원 한 명 한 명의 개성과 진정성이 빛을 받으며 100분이 넘는 러닝타임에도 진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최정예 여군 설치는 제작진이 가장 공들인 부분 중 하나이다. 여군 전역자의 숫자가 많지 않고, 특수부대 역시 남군에 비해 현저히 적어 섭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작진은 출연자를 찾기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국방부 행사인 취업박람회 가 여군을 섭외하고 국방일보에 실린 여군 인터뷰 기사를 살살이 뒤졌다. 군 관계자에게 추천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렇게 뽑힌 대원들은 부대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악바리 근성으로 프로그램 내내 손에 땀을 쥐는 승부를 보여준다. 신 PD는 “실제 현장 역시 팽팽하고 날 선 분위기가 가득했다”며 “여군 대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과감하게 표현하고 승부에 임해 그 결과에 따른 감정 역시 솔직하게 내뽐는 부분들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대원들이 극한의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을 앵글에 생생히 담으려면 제작진 역시 ‘강철체력’이 필수이다. 강철부대팀에는 PD

시즌 최초 여군 서바이벌로 기대를 모았던 <강철부대W>가 10월 1일 베일을 벗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반응이다. 부대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대원들 간 불꽃 튀는 신경전과 최영재 마스터가 경기를 중단시킬 정도로 독기 서린 참호격투에 시청자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첫 화 분당 최고 시청률이 4.1%까지 치솟았고 2049 시청률은 종편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 채널A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1회 풀버전은 조회수 139만 회(10월 17일 기준)를 넘어서며 인기와 화제성을 동시에 잡았다. <강철부대W>를 연출한 신재호 스튜디오E PD는 “여성 시청층의 반응은 어느 정

도로 구성된 러닝 크루가 있을 정도로 건강 관리에 진심이다. 이들은 3월 동아마라톤 10km 코스를 완주하기도 했다. 네 번째 시즌을 이어오며 제작진 간 전우애도 대원들 못지않다. 앞으로 선보일 회차에서는 그간 선보이지 않은 강력한 미션들을 해결해 나가는 대원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팀워크가 담긴다. 신 PD는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며 여군에게 경외심이 들었다. 현장에

서 자주 소름 돋고 매번 경탄했다”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감정이 전해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열정과 감동이 가득한 <강철부대W>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대규모 팝업 스토어도 출격한다.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에서는 <강철부대> 시리즈를 구현한 팝업 스토어가 운영된다. 강철부대 속 치열한 서바이벌 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포토존을 구현했고 역대 강철부대 출연진과 기록을 대결하는 헬스존, 실제 사격의 반동까지 구현한 사격존 등 다양한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스티커, 키링, 물통, 스포츠타월 등 한정판 강철부대 굿즈 19종과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한 라이선스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정하니

스토리텔링 시사 프로부터 유튜브 경제 라방까지...깊이 더하고 확장되는 채널A 보도시사

<이야기 더> 론칭...매주 월~금 오후 3시 50분 방송



<이야기 더> 유승진 기자

<일요일 뉴스 A LIVE> 구자준, 장하얀 기자

<토요랭킹쇼> 우현기, 전민영 기자



<경제시그널> 진행을 맡은 보도본부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



<이야기 더>에는 보도본부 기자들이 출연해 그날의 이슈를 이야기하듯 설명해 준다.

채널A 시사·보도가 더 깊고 다양한 이야기로 시청자들을 만난다.

채널A 보도본부는 9월 30일 시사교양을 집목한 본격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 더>를 선보였다. <이야기 더>는 크게 두 가지 코너로 구성된다. ‘오늘 이야기 더’에서는 보도본부 기자들이 출연해 그날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이야기 들려주듯 소개한다. ‘물랐던 이야기 더’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등장해 역사,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와 인물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에서 설명해준다. 2~3차례 나오는 퀴즈를 맞힐 때마다 조금씩 충전되는 배터리는 보는 재미를 더해준다.

<이야기 더>의 진행은 워싱턴特派원을 자낸 유승진 기자가 맡았다. 유 기사는 “<이야기 더>를 보시면 꼭 하나는 얻어가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야기 더>

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경제시그널>도 10월 4일부터 시작했다. <동영상 뉴스타디>, <정치시그널>, <김진의 데라방>에 이어 보도본부가 만드는 네 번째 디지털 전용 콘텐츠다.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이 매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한 주 간의 경제·산업 이슈를 풀어준다. ‘돈 걱정 하지 말라’는 의

미의 ‘돈워리 돈워리’ 코너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과 주식 등 실생활에 유용한 돈의 흐름을 짚어주고, ‘E-코너’에서는 기업들의 이슈를 알기 쉽게 콕 찌어 설명한다. 매주 목요일 <뉴스 A LIVE>도 금요일처럼 1, 2부로 나뉘어 방송되는데 2부에서는 경제뉴스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주말 시사 프로그램 앵커진은 더 젊어졌다. 주말을 여는 <토요랭킹쇼>는 우현기,

전민영 기자가 진행을 맡아 주요 이슈를 전한다. 구자준 앵커가 진행하는 일요일 <뉴스 A LIVE>에는 장하얀 기자가 가세했다. 모두 입사 10년 차 이하 기자들로 앵커 진용을 갖췄다. 현장 취재 기자로 뛰고 있는 경험을 살려 주말 오전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보도본부 편집1부 전민영

Channel A



① 제1회 어린이 우주인 선발대회에서 홍보대사로 뽑힌 어린이들. ② 어린이과학동아 팬파티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퀴즈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스무살 생일 맞은 어린이과학동아, 어린이 우주인 선발해 NASA 보낸다

어린이 독자 200명 초청 팬파티 개최...디지털 콘텐츠 결합 상품도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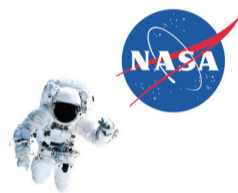
2004년 창간된 어린이과학동아가 2024년 10월 1일 20번째 생일을 맞았다. 어린이과학동아는 매달 2회 발행되며 20년간 총 1만2000여 개의 기사와 120개의 만화를 연재했고, 누적 발행부수 2300만 부·누적독자 80만 명을 달성했다. 또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를 출간하는 미국 과학진흥협회(AAS)가 주는 과학 언론상을 2008년 국내 최초로 수상한데 이어 2022년에도 과학 언론상을 수상하며 전문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동아사이언스는 어린이과학동아 창간 20주년을 맞아 고흥군청과 '제 1회 어린이 우주인 선발대회'를 주최했다. 4월 전국 1654명의 초등학생이 참가해 4개월간 어

린이 우주기자단으로 활동했고, 이 중 30명은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동아사이언스가 최종 선발한 조은영(말양초) 양, 유재민(흥신초) 군 등 2명은 오는 11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 세계적인 우주 연구기관 및 기업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어 동아사이언스는 10월 13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어린이 독자 200명을 초청해 팬파티도 열었다. 어린이과학동아를 읽고 우주 공학도가 된 이성문 우주로테크 대표와 이건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우주항공학부 학생회장의 토크쇼에 이어 어린이과학동아 관련 퀴즈와 게임도 진행했다. 장경애 동아사이언스 대표는 "어린이과학동아에게 20년간 끝없는 사랑을 주신 어린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어린이과학동아가 50년, 100년도 더 이어져 어린이의 꿈을 계속 키워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사이언스는 어린이과학동아 창간 20주년을 기념해 잡지와 동아사이언스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과학동아 Smart+' 서비스도 출시했다. 어린이과학동아 잡지 구독뿐만 아니라 10만 건이 넘는 동아사이언스의 과학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열람하고, 시를 활용한 질의응답과 분석 리포트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다.

동아사이언스 어린이과학동아팀 백창은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신화철



2024 사원확장 캠페인 '같이, 가치 더하다+' 진행

동아일보+밀리의 서재, DBR 등 신문 결합상품 출시

동아일보 마케팅본부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아미디어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같이, 가치 더하다+' 사원확장 캠페인을 진행한다.

회사는 캠페인 참여자 1명당 도시락 1개를 저소득층 결식아동에게 후원한다. 마케팅본부는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모든 사원에게 동아일보 창간호가 새겨진 머그컵을 제작해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에선 신문 결합상품을 새로 선보인다. 결합상품은 동아일보와 밀리의 서재, 어린이 과학/수학동아, DBR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캠페인을 마친 뒤 우수확장 사원에게는 확장우수상(신규+재연결)과 관리우수상(신규+재연결+유지)을 시상한다. 확장우수상은 ▲대상 1명 300만 원 ▲금상 2명 200만 원 ▲

은상 3명 100만 원 ▲동상 4명 50만 원을 지급한다. 관리우수상은 ▲200부 이상(여드레서 또는 무선청소기 또는 갤럭시워치 울트라) ▲100부 이상(갤럭시 링 또는 갤럭시 탭 또는 스탠드형 모니터) ▲50부 이상(갤럭시 버즈3 프로 또는 갤럭시워치6 또는 큐키) ▲30부 이상(의향드 또는 모바일 포토 프린터) ▲20부 이상(갤럭시 핏3) ▲10부 이상(블루투스 스피커) ▲3부 이상(휴대용 소화기)을 시상한다.

관리우수상 최저 부수를 지난해 5부에서 올해는 3부로 낮춰 더 많은 사원에게 혜택이 가도록 했다. 또 올해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한 "확장은 처음이지?" 이벤트와 매월 1회 짝짝이 이벤트를 마련해 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케팅본부 마케팅총괄팀 이상철

<강철부대W>×이마트24 콜라보 제작 디저트 5종, 부대찌개 컵라면 등 출시

"강철! 이마트24와의 콜라보를 신고합니다."



▶ 불부대찌개 라면컵



▲ 꿀팥빵, 수제초코파이, 크림치즈스타트

<강철부대W>가 이마트24와 손잡고 부대찌개 컵라면, 수제초코파이, 크림치즈스타트, 꿀팥빵, 올드웨선도넛(2종), 크림 우동&양념치킨 총 7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새 시즌을 맞아 기존의 PX 컨셉의 상품군에 달콤한 디저트와 베이커리류를 더해 선택의 폭을 크게 늘렸다.

군대 하면 떠오르는 추억의 '수제초코파이', <강철부대> 쟁탈전 미션 속 타이어를 연상시키는 '올드웨선도넛', 역대 최대 용량으로 준비된 '부대찌개 컵라면' 등은

재미와 맛을 동시에 사냥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 7종은 10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되고 가까운 이마트24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콜라보를 기획한 미디어커머스팀 유영재 팀장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강철부대>가 TV 화면을 넘어 일상 생활 속에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며 "보는 재미에 먹는 재미까지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콘텐츠사업본부 미디어커머스팀 김슬기

동아일보 채널A 경영직군 채용설명회 진행



10월 8일 서울 서대문구 캐치키메 신촌점에서 진행된 동아일보 경영직군 채용 설명회 현장. 채널A는 10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취업준비생들을 만났다. 이번 설명회는 인사팀이 회사 및 채용 전형을 소개한 뒤, 현직자들이 직무별 멘토링을 해주는 순서로 진행됐다. 취업준비생들은 현직자들이 직접 회사의 장점과 채용 팀을 설명해주는 유익했다고 입을 모았다. 경영직군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는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수상소식

A-Starz 캐릭터 디자인, K-디자인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부문 수상



'K-디자인 어워드'에 참석한 채널A B&C 브랜드디자인팀 한혜선 과장(왼쪽)과 오혜정 팀장.

채널A B&C가 10월 4일 열린 'K-디자인 어워드'에서 'A-Starz'로 커뮤니케이션

부문 '위너(본상)'를 수상했다. 7월 공개된 'A-Starz'는 채널A 방송 프로그램 속 캐릭

터 6종을 새로운 세계관으로 묶어낸 가상의 아이돌 그룹으로, 채널A 브랜드 아이덴티티(태)를 활용한 별 모양 심볼이 도드라진다. 'K-디자인 어워드'는 아시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로, 이번 수상으로 'A-Starz' 디자인이 보여준 잠재력과 창의성의 가치가 인정 받은 것. 채널A B&C 브랜드디자인팀의 오혜정 팀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각 콘텐츠의 IP를 살리면서도 하나의 컨셉으로 브랜드링한 신선한 도전이었다"며 "앞으로도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시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